공공도서관 협력망에 대한 평가

An Evaluation of the Public Library Cooperation System: A Library Survey

이 용 남(Yong-Nam Lee)*
곽 철 완(Chul-Wan Kwak)**
김 태 승(Tae Sung Kim)***
남 태 우(Tae Woo Nam)****
이 용 훈(Yonghun Lee)*****

초 록

본 연구는 현재의 도서관협력망에 대해서 개개 도서관 사서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도서관협력망에 대해서 오직 30% 미만만이 성공가능성을 예측하여 많은 개선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내용에서는 목록DB 분야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분담수서와 공동수서 부분의 중요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합동교육, 교육·문화프로그램 협력, 공동홍보 등이며, 반대로 공동수서, 분담수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낮게 보고있었다. 또한 도서관협력망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으로 도서관의 협력망 가입여부와 소재한 위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협력망에 대해서 하향식 모델과 상향식 모델을 제시하여 현재의 문제점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current library cooperation system and to identify what fields should be cooperated with other libraries. A survey and group interviews are used for research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only under 30% of respondents estimated the success of library cooperation system. The system needs to be changed. Online catalog and DB are evaluated as important fields, while the shared/cooperation acquisition is evaluated as less important field in current cooperation system. Also, education cooperation, the cooperation of education and culture programs, and advertisement cooperation are more necessary. The shared/cooperation acquisition is less necessary in library cooperation filed. The membership libraries of cooperation systems and library location are affected to responses as a factor. This study proposes two library cooperation systems: upload library cooperation system and download library cooperation system.

키워드: 공공도서관협력망, 협력체제, 공공도서관협력분야, 설문조사, library cooperation system

---

* 한성대학교 교수(lyn0802@hansung.ac.kr)
** 강남대학교 조교수(ckwak@kangnam.ac.kr)
*** 경기대학교 교수(tskim@kuic.kyonggi.ac.kr)
**** 중앙대학교 교수(namtw@cau.ac.kr)
***** 한국도서관협회 기획부장(blackmt@hitel.net)
논문접수일자 2002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11월 29일

1. 서론

지식자원의 급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는 오랫동안 지식과 정보자원을 독자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해 온 도서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은 이제 어느 한 도서관만으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지식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공하는 물리적 자족이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자원공유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도서관을 둘러싼 제반 기술적·사회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으로 인하여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손쉬운 검색과 적은 비용의 상호대차 서비스는 개별 도서관들이 소장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는 자원을 다른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에 도서관간 협력을 크게 강화한다면 개별 도서관들도 이용자들에게 더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도서관 상호협력의 원칙은 오랜 경험을 통해 정착시켜온 도서관의 기본 이념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본이념과 현실적 필요를 고려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8장에 도서관협력망을 명문화하여 그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리고 1997년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앙관으로 하는 공공도서관협력망을 구성하고, 16개 시·도에 지역대표관을 두고 10여 가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협력사업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아직 미약한게 사실이다.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않을까?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별 도서관의 기본적인 조건, 즉 장서나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하거나 도서관간의 조정과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총괄적인 지침이나 표준시스템 도입, 각종 행정적 제도나 실질적 운영재원 등이 미흡한게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실제 원하는 협력사업의 내용이 법령과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협력망과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도서관협력사업에 대한 개개 공공도서관의 평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조사하여, 그 결과에 기초하여 협력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2. 도서관 협력체제

2.1 협력체제의 내용

도서관은 이용자의 정보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또 다른 면으로는 도서관 경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도서관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채택해 왔던 협력사업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협동수서, 협동 서지편찬, 공동활용, 행사기획, 정보망 시스템 편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현규섭 1997). 이것보다는 약간 축소된 내용으로 한국도서관협회(1994)의 도서관협력 정의에는 상호대차, 종합

목록 작성, 공동목록, 공동수서, 서지정보 제공 및 교환으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도서관협회(1986)에 의하면 협력망을 통하여 응용될 수 있는 기능들로 상호대차, 참고봉사, 수서, 문서우송, 목록, Union List, 서지접근, 사진복제, 대출, 인쇄정보처리, 장서개발, 상담, 마이크로필름의 제작, 자동관리 봉사, 문헌조사, 데이터베이스 보존, 정보제공, 직원능력개발, 도서관 일상업무의 개선책 20여 개 항목으로 세분, 확대시키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 협력사업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도서관업무 전체라고 할 수도 있다.

실제적인 협력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협력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협력망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도서관간에 소장 자료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협력체제와 둘째는 전자시스템에 의한 협력망이다. 전자는 도서관들이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형식으로서 전통적인 도서관협력망들이 모두 이 형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자원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종합목록 작성, 주제별·지역별 목록 작성, 상호대차, 원문복사, 소장목록교환, 자료제공 등, 공동 수서, 공동 보관, 공동 편목, 직원 교육, 운영 및 정보서비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Sewell 1981, 59-62). 한편 후자는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도서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조직들의 정보자원을 컴퓨터망을 통해 상호 연결시키는 형식으로 전자도서관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협력망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협력에 대한 내용이 변화되기도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추진되는 협력사업에 대해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내용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0년도에 추진하는 중점 협력사업을 비교해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41조에 문화관광부장관은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 체제로서 도서관협력망을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산화된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서지편찬·정보처리·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 분담수서·상호대차·종합목록 및 인쇄카드 제도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 기타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00년도에 협력사업을 크게 5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첫째, 도서관정보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지식정보사회 기반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시 문헌정보처리 표준화 도구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가자료 공동목록(KOLIS-NET)시스템 개발, 공공도서관 표준 자료관리 시스템(KOLAS II)보급 민간구축 원문 DB구입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정보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등 6개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둘째, 사서직원 전문교육훈련 실시이다. 셋째, 도서관 자료 제적·폐기관련 연구 추진사업이다. 넷째, 전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지원사업이다. 다섯째는 공공도서관 자료지원사업이다. 위의 협력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입장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며, 직접적인 공공도서관에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2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 운영되는 협력망을 살펴보면, 먼저 도서관협력을 위해서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캘리포니아 주(州)의 the Library of California를 들 수 있다. 이 기구는 서비스 영역을 크게 9개로 구분하고 있다: 자원공유(상호대차, 참고봉사, 공동수서/분담수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도서관간의 커뮤니케이션, 자료전달, 및 다른 연결, 주 전체의 커뮤니케이션, 자료전달, 및 다른 연결, 서지 DB 구축, 인적 자원 개발, 운영 및 관리, 자원보존, 이용자관계 및 홍보. 이들 영역 중에서 활발하게 수행되는 서비스는 목록의 공유, 원문 DB의 이용, 상호대차 등이다(Library of California 2001).

다음으로 뉴욕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협력망은 캘리포니아 주와는 약간 다른 체제를 갖추고 있다. New York State Library 산하의 Division of Library Development에서 도서관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의 중심도서관 지원, 자료보존, 건축지원, 상호대차, 지역서지 DB와 자원공유 교육 및 기타사항 등이다. 이 시스템은 주립도서관이 직접적으로 주 전체에 소재한 다양한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원 공유와 서비스 향상을 추구하고 있다(New York State Library 2001).

반면에 지역별로 자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 예도 있다. Colorado Alliance of Research Libraries/CARL가 하나의 예인데, 1974년 미국 콜로라도주의 7개 대형 도서관이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도서관 협력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해 시작하였다. 자발적으로 덴버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4개 주립대학, 1개 사립대학, 주립광산학교가 협력체제를 구축하였고 최근에 콜로라도 대학교 보건과학센터(Health Sciences Center), 와이오밍대학교 도서관이 가입하였다. 주 활동 내용은 상호대차, 자원공유, 장서개발, DB 공동구입 등이다(Boucher 1997).

영국의 경우, the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Lending Services(NLSLS)에서는 스코틀랜드 국가도서관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도서관 상호대차와 종합목록 작성을 주 서비스로 설정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간의 협력체제가 아니라 국가도서관이 각 지역의 도서관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이루어져 있다(National Library of Scotland 2001). 반면에, the East Midlands Regional Library System(EMRLS)은 영국 남동부 지방에 있는 도서관들에 대해 서로 협력을 위한 상호협력 조직이다. 동시에 상호대차 협력에 관련된 회원 도서관의 대변인 역할을 담당한다. 주요 목적은 도서 및 관련된 자료의 상호대차를 통한 도서관 상호협력을 도모하며, 도서관들간의 도서관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다. 주 내용은 상호대차 서비스, 공동구입 및 공동보유, 출판사업, 기타 협력사항 등이다(CONARLS 1998).

캐나다 알버타주의 Shortgrass Library systems는 알버타주의 7개 도서관 시스템의 하나로 주 남동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자료 대출, 종합목록, 상호대차, 참고봉사 등이다. 특히, 상호대차 서비스는 본 시스템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만약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알버타주의 다른 도서관

시스템을 조사하며, 다음 단계로 다른 주에 요청하고 있다(Shortgrass Library System 2001).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도서관 협력망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나 특정지역 전체의 자원 공유를 위해서 협력망이 구축되어 운영되거나, 지역 단위의 도서관들에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력망이 운영되고 있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공공도서관의 협력망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협력망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둘째, 공공도서관협력망에 속한 16개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실제 협력망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문제점을 이해하고, 설문결과 나온 내용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였다.

3.1 설문조사

2001년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1달간 전국 389개 공공도서관(분관 등은 제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52.7%인 205개관이 회신하였다. 반송용 봉투를 동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율이 낮은 것은 거의 모든 도서관에 협력망 사업을 전담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협력망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에 응답하기가 어려웠다고 생각된다. 이는 설문지 9번 항의 협력사업 전담인력을 묻는 질문에 응답한 197관 중 없다는 응답이 184관(93.4%)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설문지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1)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한 도서관협력망에 대한 생각과 2) 앞으로 도서관협력망이 구축된다면 어떤 분야의 협력이 가능한가로 구분할 수 있다. 항목은 도서관협력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내용을 기초로하여 작성되었다.

3.2 현장 방문조사

2001년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전국 5개 지역(강원도지역, 부산, 울산 및 경남지역, 대구 및 경북지역, 광주 및 전남지역, 대전지역) 도서관을 직접 방문, 해당지역의 주요 도서관 협력사업 담당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서관 협력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각 지역에서는 도서관 실무자들 4~5명이 연구진과 함께 지역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4. 데이터분석 및 토의

4.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도서관협력망

1) 도서관 협력망에 대한 법령의 유용성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한 도서관협력망이 실제 도서관협력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이지 못한 응답을 하였다. 응답한 도서관의 47%(96관)가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34%(69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8.7%(38관)가 되었다. 이러한 응답은 응답 도서관의 지역별

혹은 협력망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내용은 현재 법령에 제시된 도서관 협력망이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2) 도서관협력망 사업 성공 가능성

도서관협력망 사업 성공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응답한 도서관의 26%인 53관에서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하였고, 85관(41.7%)은 '아니다' 그리고 66개관(32.3%)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해 현재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응답한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약간씩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에서는 '아니다'라는 응답이 48.4%(45관)인 반면, 대도시 36.1%(13관), 중소도시 30.3%(20관)으로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소재한 도서관이 현재의 도서관협력망의 성공여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표 1참조). 이 결과는 현행 도서관협력망이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중앙집중식 체계를 갖추기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동시에 중앙집중식 도서관협력망이 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과 연관된다.

3) 법령에 규정된 도서관협력망 주요 기능의 중요성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41조 제1항에 도서관협력망 기능을 4가지로 구분하여 전산화된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서지편찬·정보처리·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 분담수서·상호대차 종합목록 및 인쇄카드제도 등 도서관운영 효율화 기타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되어 있다. 이 4가지를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질문에 법령에 나와있는 순서와는 역으로 응답하였다. 즉, 기타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130관/64.4%) → 분담수서·상호대차 종합목록 및 인쇄카드제도 등 도서관운영 효율화(38/18.8%) → 서지편찬·정보처리·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22/10.9%) → 전산화된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12/5.9%) 순으로 나타났다. 법령에서는 전산화된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인

표 1. 도서관협력망 성공 가능성과 도서관 소재지에 따른 비교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합계
그렇다	11(30.6%)	16(24.2%)	24(25.8%)	51(26.2%)
아니다	13(36.1%)	20(30.3%)	45(48.4%)	78(40.4%)
잘모르겠다	12(33.3%)	30(45.5%)	24(25.8%)	66(33.8%)
계	36(100%)	66(100%)	93(100%)	195(100%)

※ 응답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재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임.

식한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제 다른 도서관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맺도록 하는 제반 사항, 주로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력망이 전산화된 협력망보다는 실제 도서관간의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도서관협력망 모델

현행 법령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중심의 중앙집중식 도서관 협력망을 갖추고 있는데, 많은 응답이 체제가 제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의 70.8%인 143관에서 제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하였고, 33관(16.3%)는 잘 모르겠다는 답을 하였다. 오직 26관(12.9%)만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마도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도서관협력망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의 표현이라 생각된다. 선호하는 도서관협력망 모델에 대한 질문에서 약 60%의 응답이 중앙집중식과 유사한 모델들을 선호하였다.

4가지 도서관협력망 조직모델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델을 물은 결과 계층적 협력지도방식(64관, 31.2%)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도서관협력센터를 둔 집중방식(55관, 26.8%), 지방분산협력방식(47관, 22.9%), 다수의 도서관협력센터를 둔 기능분담방식(31관, 15.1%) 순서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국립중앙도서관이 운영하는 도서관협력망의 주요 분야

1) 목록 DB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협력망 사업들 중에서 목록 DB에 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94.9%가 '매우중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자관 운영에는 79.2%가 '매우중요' 혹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의 48.8%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여 중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협력망 운영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표 2 참조).

표 2.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의견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중요치 않음	응답수
협력망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126 (62.3%)	66 (32.6%)	8 (3.9%)	2 (0.9%)	0	202
개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여정도	79 (40.9%)	74 (38.3%)	30 (15.5%)	8 (4.1%)	2 (1%)	193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무응답*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여부	3(1.5%)	0	100(48.8%)	102

* 무응답은 도서관협력망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목록정보의 On-line 제공'에 대해서 92.5%가 '매우중요' 혹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자관 운영에는 78.2%가 '매우중요' 혹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장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약 46.3%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3 참조). 이러한 결과는 도서관협력망을 통하여 구축되는 DB에 대한 신뢰감에 대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과는 현행 도서관협력망이 제대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부분적인 개선을 통하여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준다.

2) 상호대차

상호대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전체의 53.3%가 '매우중요' 혹은 '중요'로 표시하였으나, 다른 사업분야에 비해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지만, 자관 운영을 도와주는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은 오직 전체의 29.2%만으로 중요성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마음속으로는 도서관협력망에서 상호대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때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전체의 19.5%는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9.3%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4 참조).

표 3. 목록정보의 On-line 제공에 대한 의견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중요치 않음	응답수
협력망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101 (49.7%)	87 (42.8%)	13 (6.4%)	2 (0.9%)	0	202
개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여정도	62 (31.9%)	90 (46.3%)	28 (14.4%)	10 (5.1%)	4 (2%)	193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무응답*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여부	4(2%)	1(0.5%)	95(46.3%)	105

* 무응답은 도서관협력망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표 4. 상호대차 실시에 대한 의견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중요치 않음	응답수
협력망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21 (10.3%)	87 (43%)	69 (34.1%)	22 (10.8%)	3 (1.4%)	202
개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여정도	11 (6%)	42 (23.2%)	72 (39.7%)	42 (23.2%)	14 (7.7%)	181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무응답*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여부	14(6.8%)	26(12.7%)	101(49.3%)	64

* 무응답은 도서관협력망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이러한 결과는 현장 방문조사에서 그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많은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실행한 실적도 없으며, 이용자가 원하지도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이용자는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원하지 기다리지는 않는다는 이유이다. 또한, 대도시인 경우에는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자료가 없으면 타 도서관을 이용하지 굳이 상호대차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료의 분실도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회원증 공동이용을 통한 관외대출 공유제에 대해서는 58.3%가 '매우중요' 혹은 '중요'로 응답하였다. 이는 협력망에 가입한 도서관과 가입하지 않은 도서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표 5 참조). 여러 종류의 협력망 중 하나라도 가입한 도서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지만, 가입하지 않은 도서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또한,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6 참조). 대도시에 위치한 도서관에서는 그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중소도시 및 농어촌 도서관에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인근에 위치한 도서관과 지리적인 관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관외대출 공유제에 대해서 전체의 38%가 자관운영을 도와주는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38.6%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의 19.5%는 이 사업에 대해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9.3%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표 7 참조).

우편복사서비스는 '분담수서, 공동수서' 사업 다음으로 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된 사업이다. 전체의 40%가 도서관협력망에서 '매우중요' 혹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8 참조). 이 분야에 대해서 협력망 가입여부가 영향을 미치

표 5. 관외대출 공유제에 대한 협력망 가입여부에 따른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협력망 가입	149	2.3289	.9112
협력망 미가입	42	2.7143	1.0190
합계	191		
자유도 = 189, t = -2.358*			

*P < .05

표 6. 관외대출 공유제에 대한 지역별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36	2.0556	.8927
중소도시	66	2.4697	.8633
농어촌	91	2.4945	.9589
합계	193		
자승합 = 5.401, 자유도 = 2, 평균자승합 = 2.701, F = 3.226*			

*P < .05

표 7. 관외대출 공유제에 대한 의견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중요치 않음	응답수
협력망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21 (10.3%)	87 (43%)	69 (34.1%)	22 (10.8%)	3 (1.4%)	202
개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여정도	11 (6%)	42 (23.2%)	72 (39.7%)	42 (23.2%)	14 (7.7%)	181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무응답*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여부	14(6.8%)	26(12.7%)	101(49.3%)	64

* 무응답은 도서관협력망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표 8. 우편복사 서비스에 대한 의견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중요치 않음	응답수
협력망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15 (7.3%)	67 (32.7%)	85 (41.5%)	34 (16.6%)	1 (0.5%)	202
개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여정도	14 (6.8%)	40 (19.5%)	64 (31.2%)	53 (25.9%)	10 (4.9%)	181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무응답*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여부	22(10.7%)	15(7.3%)	88(42.9%)	80

* 무응답은 도서관협력망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고 있었는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9 참조). 최소 하나의 협력망에 가입한 도서관과 가입하지 않은 도서관 사이에는 우편복사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었다. 즉, 협력망에 가입한 도서관에서 우편복사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가입하지 않은 도서관에서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큰 차이지 보여주지 않았다. 전체의 26.3%가 자관 운영을 도와주는데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35.3%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의 42.9%는 협력망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18%는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3) 분담수서, 공동수서

도서관협력망 사업중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분야는 '분담수서, 공동수서'이다. 전체의 33.6%는 '매우중요' 혹은 '중요'로 응답하였으나, 19.2%는 '중요하지 않다' 혹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로 응답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표 10 참조). 대도시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표 11 참조). 이러한 현상

표 9. 우편복사 서비스에 대한 협력망 가입여부에 따른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협력망 가입	149	2.6174	.8822
협력망 미가입	41	2.9268	.7871
합계	190		
자유도 = 188, t = -2.033*			

*P < .05

표 10. 분담수서, 공동수서에 대한 의견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중요치 않음	응답수
협력망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12 (5.9%)	56 (27.3%)	96 (46.8%)	32 (15.6%)	6 (2.9%)	202
개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여정도	7 (3.4%)	30 (14.6%)	74 (36.1%)	50 (24.4%)	19 (9.3%)	180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무응답*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여부	28(13.7%)	40(19.5%)	94(45.9%)	43

* 무응답은 도서관협력망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표 11. 관외대출 공유제에 대한 지역별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36	2.4444	.8765
중소도시	66	2.9231	.9238
농어촌	91	2.8478	.8111
합계	193		
자승합 = 5.745, 자유도 = 2, 평균자승합 = 2.873, F = 3.861*			

*P < .05

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도서관일수록 분담수서나 공동수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관에서 별로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대도시의 도서관에서 상대적으로 중소도시 혹은 농어촌 지역의 도서관에 비하여 도서구입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해 전체의 30.9%가 자관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전체의 30.8%가 도서관협력망에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8.3%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내용은 현장 방문조사에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도서구입비 관리상 문제, 도서관의 지리적인 분산, 도서관간 예산의 차이와 부족, 그리고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러

한 원인 중에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한정된 예산으로 다른 도서관과 분담하여 자료를 구입하면, 그 만큼 자관에 필요한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4) 복사카드 공유제와 공동홍보

복사카드 공유제에 대해서 전체의 53.2%가 '매우중요' 혹은 '중요'로 응답하였다. 전체의 37.1%가 자관 운영을 도와주는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7.8%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12 참조). 도서관협력망에 가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도서관협력망에 가입한 도서관에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표 13 참조). 이러한 결과는 실제 복사카드를 공유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소재지별로 비교하였을 때 역시 차이가 있었다(표 14 참조). 대도시에 위치한 도서관과 중소도시 혹은 농어촌에 위치한 도서관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서관은 복사카드를 공유하여 서로 이용할 수 있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관에서는 이용자가 타 도서관을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 대해서 전체의 48.3%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17.6%는 도서관협력망에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회계처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한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여 나중에 결제하는데 복잡할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복사기 카드 인식기가 여러 카

표 12. 복사카드 공유제에 대한 의견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중요치 않음	응답수
협력망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32 (15.6%)	77 (37.6%)	62 (30.2%)	26 (12.7%)	6 (2.9%)	203 182
개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여정도	19 (9.3%)	57 (27.8%)	49 (23.9%)	42 (20.5%)	15 (7.3%)	무응답* 70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여부	24(11.7%)	12(5.9%)	99(48.3%)	

* 무응답은 도서관협력망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표 13. 복사카드 공유제에 대한 협력망 가입여부에 따른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협력망 가입	149	2.3960	.9644
협력망 미가입	42	2.8095	1.0876
합계	191		
자유도 = 189, t = -2.385*			

*P < .05

표 14. 복사카드 공유제에 대한 지역별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36	2.1111	.9189
중소도시	66	2.5152	.9805
농어촌	91	2.6304	1.0348
합계	193		
자승합 = 7.020, 자유도 = 2, 평균자승합 = 3.538, F = 3.861*			

*P < .05

드를 인식해야 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염려하는 것 같다.

공동홍보에 대한 의견은 높게 나왔다. 전체의 61%가 도서관협력망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직 7.8%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목록 DB 사업을 제외하고는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사업분야였다. 전체의 41%가 자관 운영을 도와주는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0%는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의 49.8%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8.8%만이 도서관협력망에서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15 참조). 이는 도서관협력망 사업으로는 중요하지만, 자관 운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4.3 도서관협력이 필요한 사업

설문지에 14가지 사업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은 합동교육이었으며, 가장 낮게 응답한 사업은 '공동수서/분담수서'이었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합동교육

응답자의 81%가 합동교육이 도서관협력 사업에 '매우필요' 혹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오직 2%에 불과하였다(표 16 참조). 이는 도서관 소재지나 혹은 협력망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필요하다고 생

표 15. 공동홍보에 대한 의견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중요치 않음	응답수
협력망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평가	36 (17.6%)	89 (43.4%)	62 (30.2%)	11 (5.4%)	5 (2.4%)	203 182
개별 도서관 운영에 대한 기여정도	24 (11.7%)	60 (29.3%)	57 (27.8%)	34 (16.6%)	7 (3.4%)	무응답* 105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불필요, 불가능, 개선필요 여부	6(2.9%)	102(49.8%)	85	

* 무응답은 도서관협력망 사업 중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표 16. 협력사업에 있어서 합동교육 필요성에 대한 평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응답수
59(28.8%)	107(52.2%)	27(13.2%)	4(2%)	0	197
					평균: 1.8782*

* 매우필요=1, 전혀불필요=5 로 계산하였음.

각하고 있었다. 오늘날 도서관의 재교육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개별적인 도서관에서 독립적으로 재교육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이 나왔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비용적인 측면이나 법률적인 측면에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다고 본다.

2) 교육·문화프로그램 협력

응답자의 76.6%가 교육·문화프로그램의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매우필요' 혹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불필요하거나 전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오직 1%에 불과하였다(표 17 참조). 이 부분은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많은 교육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적자원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소재지나 협력망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한 응답을 하여, 전체 도서관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공동홍보

인터넷 등을 활용한 공동홍보 부분에 대해서 응답자 71.2%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답하였다. 하지만,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2.9%를 차지하였다(표 18 참조). 이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협력망 사업 중 공동홍보에 대한 평가보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변화된 공동홍보에 대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응답자의 50%정도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을 추론

표 17. 협력사업에 있어서 교육·문화프로그램 협력 필요성에 대한 평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응답수
40(19.5%)	115(56.1%)	38(18.5%)	1(0.5%)	1(0.5%)	195
					평균: 2.0154*

* 매우필요=1, 전혀불필요=5 로 계산하였음.

표 18. 협력사업에 있어서 공동홍보 필요성에 대한 평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응답수
48(23.4%)	98(47.8%)	44(21.5%)	6(2.9%)	0	196
					평균: 2.0408*

* 매우필요=1, 전혀불필요=5 로 계산하였음.

할 수 있다. 특히, 개개의 도서관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통합적인 홍보를 통하여 공공도서관 전체에 대하여 주민들의 인식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4) 원문복사

원문복사활동은 대학도서관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서관협력 사업 중에 하나이다. 공공도서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응답자의 67.8%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9.7%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표 19 참조). 원문복사와 유사한 현행 도서관협력망 사업인 우편복사서비스는 그 중요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나, 원문복사가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방법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타도서관에서 요청한 원문을 복사하여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자메일이나 팩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5) 종합목록 작성

협력사업에서 종합목록 작성은 전체의 61.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0.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20 참조). 종합목록 작성 사업은 현행 도서관협력망 사업에서 소장자료 DB 구축이나, 목록정보의 on-line 제공이 90%이상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게 응답하였다. 종합목록 작성이 앞의 여러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이 낮은 이유는 도서관협력을 자원의 공유개념보다는 다른 분야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된다. 현재 여러 분야에서 협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싶은 내용이라 여겨진다. 또한, 협력망 가입 여부에 따라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표 21 참조). 협력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더 종합목록 작성에 대한 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이미 협력망에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종합목록 작성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였지만, 가입되지 않은 도서관에서는 원론적인 관점에서 그 필

표 19. 협력사업에 있어서 원문복사 필요성에 대한 평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응답수
32(15.6%)	107(52.2%)	45(22%)	7(3.4%)	1(0.5%)	192
					평균: 2.1563*

* 매우필요=1, 전혀불필요=5 로 계산하였음.

표 20. 협력사업에 있어서 종합목록 작성 필요성에 대한 평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응답수
48(23.4%)	77(37.6%)	49(23.9%)	18(8.8%)	3(1.5%)	195
					평균: 2.2359*

* 매우필요=1, 전혀불필요=5 로 계산하였음.

표 21. 종합목록 작성 필요성에 대한 협력망 가입여부에 따른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협력망 가입	144	2.3403	1.0185
협력망 미가입	42	1.9762	.8407
합계	186		
자유도 = 184, t = -2.115*			

*P < .05

요성을 강조하였다고 생각된다.

6) 공동편목·공동목록

공동편목·공동목록 분야의 협력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5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9.3%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22 참조). 이러한 결과는 현재 도서관협력망 사업의 측면에서 비교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타 도서관에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협력망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자관의 목록을 타도서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마도 자관에서 작성한 목록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타 도서관에서 작성한 목록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 또한 최근에 목록작업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생긴 관계로 굳이 타 도서관과 협력하여 종합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7) 직원교류

도서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직원교류에 대해서 58.5%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오직 8.3%만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23 참조). 도서관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고르게 응답이 나왔는데, 이는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거의 이동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교류 분야의 필요성을 절실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표 22. 협력사업에 있어서 공동편목·공동목록 작성 필요성에 대한 평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응답수
47(22.9%)	71(34.6%)	58(28.3%)	16(7.8%)	3(1.5%)	195
					평균: 2.2667*

* 매우필요=1, 전혀불필요=5 로 계산하였음.

표 23. 협력사업에 있어서 직원교류 필요성에 대한 평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응답수
33(16.1%)	87(42.4%)	58(28.3%)	16(7.8%)	1(0.5%)	195
					평균: 2.3077*

* 매우필요=1, 전혀불필요=5 로 계산하였음.

수 있다.

8) 도서관 평가와 조사

협력사업에서 도서관 평가와 조사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응답이 59%이고,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오직 6.8%에 불과하였다(표 24 참조). 도서관협력망 가입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협력망에 가입하지 않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평가와 조사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었다(표 25 참조). 아마도 이런 결과는 협력망을 통하여 도서관 평가와 조사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자관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별로 비교하여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표 26 참조). 농어촌에 위치한 도서관보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더 많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이용자들이 각자의 도서관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협력을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이용자의 만족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표 24. 협력사업에 있어서 도서관 평가와 조사 필요성에 대한 평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응답수
23(11.2%)	98(47.8%)	62(30.2%)	14(6.8%)	0	197
					평균: 2.3401*

* 매우필요=1, 전혀불필요=5 로 계산하였음.

표 25. 도서관 평가와 조사 필요성에 대한 협력망 가입여부에 따른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협력망 가입	144	2.3403	1.0185
협력망 미가입	42	1.9762	.8407
합계	186		
자유도 = 184, t = -2.115*			

*P < .05

표 26. 도서관 평가와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36	2.1389	.6825
중소도시	63	2.0952	.6651
농어촌	89	2.5843	.8231
합계	189		
자승합 = 10.536, 자유도 = 2, 평균자승합 = 5.268, F = 9.430*			

*P < .05

9) 상호대차 및 공동 관외대출증 제도 운영

상호대차 및 공동 관외대출증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응답의 58.5%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9.7%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표 27 참조). 현행 제도상에서 상호대차나 관외대출증 제도에 대해서 28% 정도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필요성을 상당히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이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협력망 가입여부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협력망에 가입한 도서관에서 그 필요성을 높게 응답하였다(표 28 참조). 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대도시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상대적으로 그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이는 상호대차보다는 관외대출증을 공동 이용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협력망을 통하여 이 사업을 실행하고 있거나 혹은 대도시에서 실행되고 있고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반면에 중소도시나 농어촌에서 필요성을 낮게 보는 것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표 27. 협력사업에 있어서 상호대차 및 공동관외대출증 제도 운영 필요성에 대한 평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응답수
33(16.1%)	87(42.4%)	56(27.3%)	15(7.3%)	5(2.4%)	196
					평균: 2.3469*

* 매우필요=1, 전혀불필요=5 로 계산하였음.

표 28. 상호대차 및 공동관외대출증 제도 운영 필요성에 대한 협력망 가입여부에 따른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협력망 가입	145	2.2345	.8661
협력망 미가입	42	2.6667	1.0515
합계	186		
자유도 = 184, t = -2.709*			

*P < .05

표 29. 상호대차 및 공동관외대출증 제도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36	1.9444	.8927
중소도시	63	2.3651	.9385
농어촌	88	2.4886	.9346
합계	189		
자승합 = 7.616, 자유도 = 2, 평균자승합 = 3.808, F = 4.421*			

*P < .05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0) 주제별 · 지역별 서지목록 작성

주제별 · 지역별 서지목록 작성에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응답의 57.1%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10.3%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표 30 참조). 종합목록 작성이나 공동편목에 비하여 필요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전자도서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서지목록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하는 의문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시에 대부분의 도서관이 인력이 부족한 형편인데, 또 다른 업무가 생기는 것을 염려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다.

11) 기타

그밖에 협력이 필요한 사업은 협동 참고봉사 제도 운영, 공동보존, 공동 연락차량 운영, 공동수서 · 분담수서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공동 연락차량 운영과 공동수서 · 분담수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응답은 32.2%와 27.3%에 불과하였고, 불필요하다는 응답도 17.1%와 19.1%에 달하였다. 공동 연락차량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지역별로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그 원인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리적인 여건 때문이라 생각된다(표 31 참조).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위치한 도서관에서는 인근에 도서관에 없는 상황에서 굳이 공동 연락차량 운영할 필요가 없지만, 대도시는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4.4 도서관 협력망 발전 방향

도서관 협력망에 대해서 현재 운영주체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생각하는 방향과 실제 구성요소인 공공도서관들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자관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는 보조적인 활동에 대하

표 30. 협력사업에 있어서 주제별 · 지역별 서지목록 작성 필요성에 대한 평가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응답수
26(12.7%)	91(44.4%)	55(26.8%)	19(9.3%)	2(1%)	193
					평균: 2.3782*

* 매우필요=1, 전혀불필요=5 로 계산하였음.

표 31. 공동 연락차량 운영 필요성에 대한 지역별 차이

	응답수	평균	표준편차
대도시	35	2.4857	.8869
중소도시	62	2.6774	.9013
농어촌	85	2.9647	.8789
합계	182		
자승합 = 6.578, 자유도 = 2, 평균자승합 = 3.289, F = 4.170*			

*P < .05

여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000년도 협력사업 내용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자원의 전산화를 통하여 국가 전체가 자원을 공유하려는 방향으로 협력망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에서 현재의 협력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에 따라서 협력망에 대해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서관 협력망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자원공유와 개개의 공공도서관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협력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형태의 협력망을 제시한다.

첫째, 하양식 모델로 도서관 자료를 전 국민이 평등하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가적 의지를 가지고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정부주도형 모델; 국립중앙도서관 주도형 모델; 국립대출도서관 설립 모델. 정부주도형 모델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산망과 행정망을 연결시켜 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즉,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통신망의 응용으로 도서관 정보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추진방향 설정과 체계 확립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주도형 모델은 국가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위탁하여 구축하는 방법으로 현재의 조직체계의 개선하여, 지원협력과와 정보화담당관실간에 중복되는 기능과 역할을 조정하여 도서관 협력사업을 기획,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립대출도서관설립 모델은 영국의 BLDSC(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Center)와 같은 기관을 설치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과 함께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둘째, 상향식 모델은 일선 공공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망을 구축하는 모델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한다: 자율방임형 협력망 모델; 권역별 협력망 모델. 우선 자율방임형 협력망 모델은 개개인 도서관이 자발적인 필요에 따라 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들의 표준화 작업을 중앙관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즉 협력망을 아무런 구속이나 법적인 강요없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인 요구형태로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권역별 협력망 모델은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협력망을 구축하고, 다시 지형이나 생활권을 고려하여 협력망을 세분하여 구축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선 공공도서관의 의견이지 과학적인 협력망이라 볼 수 없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라 도서관협력사업에 대해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평가를 조사하고, 협력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며, 앞으로 발전된 협력체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현재의 협력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현재 어느 한 종류의 협력망이라도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과 그러하지 못한 도서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며, 도서관이 소재한 위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는 현재의 도서관 협력망이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며 동시에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협력사업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은 개개 도서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보다는 보조적인 지원을 해주는 분야에 더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관 협력망의 방향과는 다른 것이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현재의 도서관 협력망에 대해서 오직 30% 미만만이 성공가능성을 예측하였다. 현재의 도서관협력망에서 목록DB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분담수서와 공동수서 부분이 그 중요성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합동교육, 교육·문화프로그램 협력, 공동홍보에 대해서 높게 응답하였고, 반대로 공동수서, 분담수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낮게 응답하였다.

그리하여, 도서관 협력체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하향식 모델이며, 둘째는 상향식 모델이다. 이 두 가지 모델은 국가적인 자원의 공유와 개개 도서관이 필요로 하는 여러 활동들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델들은 현재의 협력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개의 도서관에 보다 도움이 되는 도서관 협력망을 구축하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국도서관협회. 1994. 『도서관정보관리편람』.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현규섭. 1997. 디지털환경에서의 도서관협력 업무 연구. 『도서관』, 52(1): 3-25.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6. *American Library Directory*. Chicago: ALA.

Boucher, Virginia. 1997. *Interlibrary Loan Practices Handbook*. 2nd ed. Chicago: ALA.

CONARLS. 1998. Library Regions in profile. [sited 2001. 8.20] <http://thenortheast.com/conarls/PIP98.pdf>

Library of California. [sited 2001. 9. 4] <http://www.library.ca.gov/loc/index.html>

National Library of Scotland. [sited 2001. 9. 12] <http://www.nls.uk/>

New York State Library. Division of Library Development. [sited 2001. 7. 30] <http://www.nysl.nysed.gov/libdev/>

Sewell, Philip H. 1981. *Resource Sharing*. London: Adre Deutsch Ltd.

Shortgrass Library System. [sited 2001. 9. 5] <http://www.shortgrass-lib.ab.ca/>

〈부 록〉

도서관협력망에 관한 설문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도서관협회는 금번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도서관협력망 협력사업 표준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맡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도서관협력의 중요성과 국가단위는 물론 개별 도서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구체적 협력사업과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서관협력과협력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현재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협력망의 운영실태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도서관협력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귀 도서관의 답변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귀 도서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1년 5 월 일

한국도서관협회

연구책임자 이용남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회신해 주실 곳 : 우편 :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팩시밀리 : 02-535-5616

전자우편 : blackmt@hitel.net

문의하실 곳 :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02-535-4868 / 담당 : 이용훈 기획부장)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8장에서 도서관협력망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도서관협력망을 구성하도록 규정한 것이 실제 도서관협력에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따르면 도서관협력망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① 전산화된 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② 서지편찬 · 정보처리 · 봉사활동 및 시설등의 표준화

③ 분담수서 · 상호대차 · 종합목록 및 인쇄카드제도등 도서관운영의 효율화
④ 기타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3. 우리나라에서 법령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도서관협력망 사업이 충분히 성공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 도서관협력망 조직모델은 4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어 답해 주십시오)

4.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식 도서관협력망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협력망이 충분히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5. 다음의 도서관협력망 조직모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델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도서관협력센터를 둔 집중방식
② 계층적 협력지도방식
③ 지방분산 협력방식
④ 다수의 도서관협력센터를 둔 기능분담방식
⑤ 잘 모르겠다

※ 현재 운영 중인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협력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6.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협력망을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목록정보의 On-line 제공					
③ 상호대차 실시					
④ 분담수서, 공동수서					
⑤ 관외대출 공유제(회원증 공동이용)					
⑥ 복사카드 공유제(복사카드 호환제)					
⑦ 우편복사서비스					
⑧ 공동홍보					

7. 각 사업 중 불필요한 사업, 불가능한 사업, 개선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곳에 V 표시하여 주십시오.

	불필요하다	불가능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①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목록정보의 On-line 제공			
③ 상호대차 실시			
④ 분담수서, 공동수서			
⑤ 관외대출 공유제(회원증 공동이용)			
⑥ 복사카드 공유제(복사카드 호환제)			
⑦ 우편복사서비스			
⑧ 공동홍보			

8. 각 사업이 귀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① 소장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목록정보의 On-line 제공					
③ 상호대차 실시					
④ 분담수서, 공동수서					
⑤ 관외대출 공유제(회원증 공동이용)					
⑥ 복사카드 공유제(복사카드 호환제)					
⑦ 우편복사서비스					
⑧ 공동홍보					

9.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협력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협력망을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모든 관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확대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

②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추진해도 될 것이다.

③ 관종별로 협력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 )

※ 귀 도서관의 협력망 참여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협력망이 있습니까? ( )

① 공공도서관협력망

② 지역단위 협력망 (이름 :)

③ 기타 협력망 (이름 :)

④ 참여하고 있는 협력망이 없다

11. 협력망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 )

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②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지만 조건이 미비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③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④ 참여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⑤ 기타 ( )

※ 도서관협력사업의 전망과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다음의 사업은 도서관협력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들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그 필요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전혀 불필요
① 종합목록 작성					
② 주제별/지역별 서지목록 작성					
③ 공동편목, 공동목록					
④ 상호대차, 공동관외대출증 제도 운영					
⑤ 원문복사					
⑥ 협동 참고봉사 제도 운영					
⑦ 공동수서 / 분담수서					
⑧ 공동보존					
⑨ 직원교류					
⑩ 합동교육					
⑪ 도서관의 평가와 조사					
⑫ 교육?문화프로그램 협력					
⑬ 공동홍보 (인터넷 등의 활용)					
⑭ 공동 연락차량 운영					
⑮ 기타 ( )					

13. 현재 운영 또는 귀 도서관이 참여하고 있는 도서관협력망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 )

① 기획력 부족
② 재정부족
③ 전담인력 부족
④ 도서관 장서부족
⑤ 도서관협력에 대한 관리자 또는 직원들의 인식 부족
⑥ 협력망 조직의 미비
⑦ 협력사업 기반(전산망, 상호대차체제 구축 등) 조성 미비
⑧ 행정체제간 협력 의식 부족 (특히 공공도서관의 행정 이원화)
⑨ 기타 ( )

※ 도서관협력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단순히 통계처리를 위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해 주십시오.

1. 소 재 지 : □ 대도시지역 □ 중소도시지역 □ 농어촌지역
   ( ) □특별시 □ 광역시 □ 도
2. 총 예 산 : 천원
3. 총 장 서 : 책
4. 봉사대상인구수 : 명
5. 연간총이용자수 : 명
6. 개관년도 : 년
7. 직 원 수 : 명 (이 중 사서직 명)
8. 관 장 : □ 사서직 □ 행정직 □ 기타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9. 협력사업 전담인력 : □ 있다 (명) □ 없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자료〉

4가지 도서관협력망 조직모델

모델 1 : 도서관협력센터-집중방식

하나의 도서관이 그 국가의 중앙콜렉션의 기능을 가지고 상호대차나 서지 조사기능을 가지고 충분한 설비와 직원을 확보하여 전국적 규모로 각종 도서관의 요구에 응하는 시스템.

도서관협력센터와 각 도서관간의 접근이 짧고 단순한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재와 같은 폭발적 출판물 증가와 자료의 전문화, 이용수요의 증대에 따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 모델에 해당되는 것은 미국 의회도서관을 들 수 있다. 또한 BLLD(영국도서관 대출국)도 자료의 대출에 한해서 이 형태에 속한다. 미국의 OCLC와 New York State Interlibrary Loan 체제는 완전집중형의 대표적 예이다.

모델 2 : 계층적 협력지도방식

도서관협력센터가 아울러 중앙집권적으로 지도를 행하는 형식으로 협력지도 관계면에 있어서 상하위가 있는 경우이다. 피라밋형의 협력관계로 러시아의 레닌도서관과 기타 도서관은 이 모델에 가까우며, 미국의 지방의학도서관 프로그램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계층형은 도서관의 기구상 구조와 업무처리 양상이 비슷한 도서관끼리 횡으로 하나의 계층을 형성하며, 종으로는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소장장서의 규모나 내용이 보다 포괄적이어서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모델 3 : 지방분산적 협력방식

분산형은 집중형과 달리 중앙에서 총괄하는 체제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도서관들을 모두 커뮤니케이션 경로로 서로 연결함으로써 도서관간 직접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론상으로는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내의 각 도서관이 어느 정도 보유장서의 주제별 특성을 달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도서관협력센터가 비교적 소규모이며 지방분권 존중의 입장에서 협력을 제도적으로 발달시키기에 적합하다. 반면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많기 때문에 경비절감 효과는 크지 않다.

이 모델에는 RLIN(미국 연구도서관협회), 영국국가도서관과 지역본부도서관 및 각 도서관이 형성하고 있는 영국의 Regional Library System 등이 속한다.

모델 4 : 도서관협력센터-기능분담방식

수 개의 규모가 큰 도서관이 도서관협력센터로 업무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각 도서관과의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결점으로는 각 센터간의 조정이 어렵고 중복이 발생하여 재정적 손해가 생길 수도

있고, 이용자에 대해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예상된다. 자료의 조직적 보존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이 방식을 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나, 지역적으로는 장서의 분담수집을 행하고 있는 미국의 Farmington Plan, 독일의 공동수집계획(Sondersamme Lgebiets Programm)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